

AUTHOR 장해경 (Hae-Kyung Chang)

TITLE 정암신학의 배경으로서 화란신학

IN 신학정론

vol.22 no.2 (November, 2004): 295-337

## 정암신학의 배경으로서 화란신학

장 해 경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신약학

### 서 론

정암(正岩) 박윤선 박사가 별세한(1988년) 후 매년 개최되어 온 이 신학강좌는 올해(2004년)로 제16회를 맞았고, 그 큰 주제를 “정암신학의 역사적 배경”으로 정하였다. 보통 평양 장로회신학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화란 개혁과 신학 등이 정암의 신학을 형성한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sup>1)</sup>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정암의 화란신학 배경’을 다루려고 한다.<sup>2)</sup>

정암의 화란신학 배경은 나머지 두 신학교육 배경과 확연히 구별

1) 오병세, “박윤선 신학이 한국 주경신학에 미친 영향,” 『박윤선의 생애와 사상』, 합동신학교출판부 편 (서울: 합동신학교출판부, 1995), 299-331쪽.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장동민 역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194-197은 정암사상의 또 다른 배경으로서 그가 유년기 때 받았던 ‘신(新)유학’(Neo-Confucianism)의 영향을 들고 있다.

2) 차영배는 1993년에 발표한 소논문에서(“박윤선 신학에 미친 화란개혁신학의 영향,” 『박윤선 신학과 한국신학』 [서울: 기독교학술원, 1993], 29-56쪽) 특별히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의 『개혁교리학』이 정암에게 미친 영향만 부분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

된다. 그 두 가지 배경이 모두 일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기간에 형성된 것이라면, 화란신학 배경은 당초부터 교육기관과 상관없이 시작되어 일정 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평생토록 지속되었다.

필자는 본론에서 먼저(1), 정암이 '화란유학 이전'까지 어떤 교육과정을 밟아왔고, 처음에 어떻게 화란신학에 관심을 갖고 접촉하게 되었으며(1.1), 화란신학과 그의 관계가 누구를 통해 어떻게 깊어졌는지를(1.2)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2), 정암의 짧은 '화란유학' 생활의 과정과 결과를 보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3), 정암의 저서들, 특히 그의 신약주석에 나타나는 화란신학자들에 대한 언급과 인용의 통계 자료(별첨자료)를 분석하되, 먼저(3.1) '언급의 빈도에 따라 정량적'으로, 다음으로(3.2) '사상의 수용 및 의존도에 따라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본론(1-3)이 서술하고 분석한 내용을 요약한 후, 정암신학의 배경으로서 화란신학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숙고해 볼 것이다.

## 1. 화란 유학 이전까지

### 1.1 화란신학에 대한 최초의 관심과 화란어 자습

정암이 언제 처음 화란(the Netherlands/Holland)의 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그가 뚜렷한 목적을 세우고 화란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때는 첫 번째 미국 유학시기(1934-36년)였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 있는 동안 틈틈이 화란어를 자습하였다. 삼대(三大) 칼빈주의 신학자 중 두 사람(카이퍼, 바빙크)이 화란 사람

이니, 그들의 신학 체계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란어를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화란어 주석과 교리학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곧 카이퍼, 바빙크, 크로츠아데, 크레다너스, 스킬더 등의 저서들을 접하게 되었고, 특히 바빙크의 개혁교리학을 애독함으로써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sup>3)</sup>

정암의 주된 관심사는 어디까지나 "칼빈주의 신학 처지에서 일관성 있게 주석을 저술하는" 일이었는데,<sup>4)</sup> 칼빈주의 신학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란신학자들의 책을 직접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체에 누구의 영향으로 화란신학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sup>5)</sup> 그는 제1차 미국 유학기에 화란어를 "틈틈이 자습"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화란의 신학 원서들을 "애독"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정암이 웨스트민스터의 신학석사과정(Master of Theology)에서 4학기 동안 이수한 23코스를 내용별로 보면, 12개가 성경과 관련된 과목이고, 2개가 신학과목(칼빈의 신학, 위기신학)이며, 나머지 9개가 어학과목(히브리어 5, 아랍어 2, 헬라어 1, 아랍어 1)이었는데, 어학과목의 성적이 모두 좋았다고 한다.<sup>6)</sup> 사람이 보통 새로운 언어를 하나

3)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정암 박윤선 목사 자서전』 (서울: 영음사, 1992), 75쪽.

4)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107쪽.

5) 홍치모,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박윤선 신학," 『박윤선의 생애와 사상』, 285-298: 290은 정암이 제2차 미국 유학시기에 화란 출신인 반 틸(C. Van Til) 교수 밑에서 변증학과 화란의 개혁신학을 접하게 됨에 따라 화란어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암 자신은 그의 화란어 자습과 읽기를 분명히 제1차 유학시기로 돌리고 있다.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248도 이 점에 있어서 간접적인 정보만을 전해준다: "그가[정암이] 화란 학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메이켄 아래서 공부할 때에 얻었던 화란 계통 자료들을 통해서였다고 한다." 어쩌면 정암은 그가 이미 제1차 유학시기에 이수했던 2개의 조직신학 과목("칼빈의 신학," "위기신학")을 통해서 반 틸 교수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배워서 독해할 정도가 되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법인데, 정암이 그 꼭 짜인 유학기간(1934~36년)에 여러 고전어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화란어까지도 습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나 소년기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정암의 수학과정을 살펴본다면, 화란어 자습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잠시 그의 독특한 어학습득 방식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자서전에 따르면, 정암은 만 8세부터 9년간(1913~22년) 고향의 서당에서 한학(漢學)을 배우는 동안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암송할 정도로 통달”하였고, 논어와 맹자는 “그 주해(註解)까지 다 외웠다”고 한다. 늘 최고의 성적으로 스승에게 칭찬을 받던 그 시절 내내 그는 “저녁마다 벽을 향해 돌아앉아서 암송하곤 했다.”<sup>7)</sup> 17세의 나이로 뒤늦게 편입한 소학교(현 초등학교)에서는 1년 동안에 6년 과정을 모두 마쳤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비상한 노력”을 기울였고 수학과 일본어 등 거의 모든 과목을 “자습하여 통달”하였다.<sup>8)</sup> 이때 영어도 처음 공부하게 되었는데 딱 흥미를 느꼈다고 말한다.<sup>9)</sup>

중학시절(1923~27년)에도 정암의 영어 학습방식은 비슷하였다. 그는 모든 과정의 영어 교과서를 수없이 반복하여 암송하는 방법으로 내용을 마스터하였다. 그를 곁에서 지켜보았던 한 후배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박 형님은 중학시절부터 이미 영어엔 통달한 바 있었다. 학교 경회 시간에 간혹 외국 손님이 오셔서 설교하신 후에는 박 형님이

6) 박윤선, “Transcript, 1934-1935; 1935-1936,”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참조.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134-135쪽).

7)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35-36쪽.

8)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38쪽.

9)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박윤선의 생애와 사상』, 18쪽.

영어로 감사의 인사를 훌륭하게 하곤 하였다. 그는 재능을 타고나서인지, 부지런해서인지, 그의 영어 실력은 뛰어났다. 물론 그에게 재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그의 근면성을 인정하고 싶다. 우리 시대의 중학교 학제는 5년이었는데…… 박 형님은 [영예 교본을 1권부터 5권까지 전 학년 분을 모두 물 흐르듯 거침없이 내리 외우곤 했다. 우리는 그의 영어 암송을 들을 때마다 어떤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이나 훌륭한 명곡을 감상하는 것 이상으로 상쾌한 기분이 되곤 했다…… 그는 아이큐가 높아서라기보다 한 가지 일에 모든 신경을 다 기울여 열중하고, 또한 부지런하여 암송할 것은 수 없이 반복해서라도 기어이 해내고야 마는 것이 그의 천성이었다.<sup>10)</sup>

하지만 정암이 향후 신학수업의 바탕이 될 영어실력을 든든히 쌓은 곳은 영문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여 입학한 숭실전문학교였다. 그는 전문학교 4년 동안(1927~31년) 평양의 관영 철도호텔 종업원들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치면서 고학하였다. 첫날 수업에서 그는 영어를 책으로만 공부한 자신보다 매일 외국 손님들을 상대하는 종업원들의 회화 수준이 오히려 더 낫다고 느꼈다. 그는 이 문제를 놓고 매일 밤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한 결과 “그들을 가르칠 때마다 이상하게도 말이 잘 되어지고 영어 단어들이 최척 기억되면서 자연스럽게 지도할 수 있었다.”<sup>11)</sup> 이 4년간 영어회화 교습 덕분에 그 자신도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며 가르치는 경험을 쌓았고, 그의 아내도 여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평양 장로회신학교에서(1931~34년) 정암은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있어서도 “그의 부지런한 자습의 결과”로 발군의 실력을 드러냈다.<sup>12)</sup> 그가 회고하는 당시의 신학교 교육은 비록 “순수”했으나

10) 방지일, “우리에게 있는 나다니엘 - 내가 본 박윤선 목사,” 『성경과 나의 생애: 정암 박윤선 목사 자서전』 (서울: 영음사, 1992), 113-141: 117-118쪽.

11)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45-46쪽.

12) 방지일, “우리에게 있는 나다니엘,” 120쪽.

“대체로 비판을 경유하지 못한 주입식”이어서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그는 졸업할 때까지 ‘칼빈주의’(Calvinism)나 ‘성경신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므로 아직 개혁주의 차원에서 신학을 해독하거나 성경을 상고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든든히 기초를 쌓아둔 영어 실력 덕분에 ‘영문 성경주석’을 읽으며 “성경연구에 다소 즐거움을 맛보기도” 하였다.<sup>13)</sup>

정암의 수학과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반복과 암송에 의한 이 탁월한 어학 자습능력은 바로 그가 소년시절에 한학을 통해 훈련하고 체득한 것이었다. 그는 줄곧 그 방식으로 일본어와 영어를 습득하였고, 신학 입문 후에는 성경 원어들을 열심히 공부하였다. 만일 그가 이미 평양신학교에서 상당 수준의 헬라어와 히브리어 지식을 갖추었다면,<sup>14)</sup> 웨스트민스터에서 여러 고전어 코스를 수강하면서도 자신의 독특한 어학 자습방식으로 화란 신학서적을 읽게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인다.

제1차 웨스트민스터 유학을 떠날 때부터 정암의 목표는 신약학자이며 그 학교의 학장이던 그레삼 메이첸(J. Gresham Machen) 밑에서 ‘성경 원어’를 연구하는 것이었다.<sup>15)</sup> 과연 이 기간 동안 그는 메이첸

13)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50, 56쪽.

14) 한부선(Bruce F. Hunt) 선교사는 1935년 웨스트민스터에서 박윤선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며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그 당시 박박사는 이미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독파했으며, 영어 강의를 능숙하게 이해했던 것입니다”(한부선, “박윤선 목사와의 나,” 『박윤선의 생애와 사상』, 124-127: 125). 이때부터 시작된 정암과 한부선 사이의 아름다운 평생 우정에 관해서는 박용규, 『가장 한국적인 미국 선교사 한부선 평전』 (서울: 그리심, 2004), 195-197, 338, 352, 365-366, 402-406, 429, 433-434, 438쪽 등을 보라.

15) 미국 유학을 떠나는 정암에게 그의 ‘신앙동지’들은 다음과 같은 기대를 걸었다: “..... [박윤선]君的 特長은 語學이다. 今春의 길도 성경 원어(히브리, 헬라)를 연구하려고 세계적인 권위자인 메이첸 박사를 찾아가는 것이다. 실로 장래에 기대하는 바 적지 않다”(『겨자씨』 1934년 8+9월호, 방지일, “우리에게 있는 나다 나엘,” 128쪽에서 재인용).

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sup>16)</sup> 메이첸은 박윤선을 따뜻하게 대했고 자상하게 지도하였다. 단순한 지도교수 이상으로 동양인 제자와 가까운 교제를 나누었으며 학문과 신앙이 조화된 인격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정암은 메이첸을 “평생 삶의 이상”으로 받들었고 성경해석 방법의 최고 권위로 삼았다.<sup>17)</sup> 요컨대, 정암은 이 기간에 “칼빈주의 신학을 재정비” 하였고, 이것은 그의 “성경 주석 저술에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sup>18)</sup> 그는 이때부터 비로소 개혁주의 신학을 의식하면서 설교하기 시작하였다.<sup>19)</sup>

## 1.2 제2차 웨스트민스터 유학

1936년 8월 신약학 석사과정(Th.M.)을 마치고 귀국한 정암은 약 2년간 평양장로회신학교에서 성경원어 강사로 일하였다. 그와 동시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표준성경주석』 편집부에서 일하면서 고린도후서 주석을 집필하며 기고하였다.<sup>20)</sup> 1938년 6월에 간행된 이 주

16)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72-73쪽; “나의 생애와 신학,” 29-30쪽. 메이첸과 정암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는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135-138, 141쪽을 참조하라.

17) 정암이 메이첸에게 보낸 다음의 편지들을 보라(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138쪽에서 재인용): “나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진정한 기독교를 발견하였고 믿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누어주시는 진정한 신앙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르치시던老교수께서 다과회 석상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됩니다. ‘박윤선 씨는 예수님과 또한 메이첸을 믿는 듯합니다.’ 그가 내 심정을 잘 이해하였다고 생각합니다”(1936년 7월 14일자); “저는 지금 고린도후서 주석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해석방법에서 유일한 참된 방법이라고 믿는 바 당신이 가르쳐주신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성경해석 강의시간에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내 영혼 속에 살아 있습니다”(1936년 9월 3일자).

18)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107쪽.

19)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18쪽.

20)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87쪽.

석은 정암이 주경신학자로서 한국 교계와 신학계에 데뷔한 치녀작이었다.<sup>21)</sup>

그 해 8월 정암은 '성경원어'와 '변증학'을 더 연구할 목적으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의 은사 메이친은 이미 타계하여(1937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없었다. 거기서 그는 1년 여를(1939년 10월까지) 머물면서 교수들의 강의를 듣는 것보다 혼자 연구하며 논문 쓰는 데 시간을 더 많이 보냈다. 그는 3학기 동안 15코스를 이수했는데, '강의'로는 시리아어(2회), 교회사, 교리적 설교 등 4코스만, '연구'로는 히브리어(2회), 아랍어(2회), 시리아어, 성경 아랍어, 골로새서 등 7코스를, '논문'으로는 데살로니가전후서와 변증학(2회)의 3코스를 선택하였다. 이 가운데 단위시간이 가장 많았던 코스는 변증학이었으며(도합 12시간), 정암은 언어와 변증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sup>22)</sup>

이 시기에 정암이 이수한 과목들을 훑어보면 두 가지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그는 이번에도 신구약성경 주석을 쓰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성경원어 연구에 치중하였고, 둘째, 신학적으로는 특별히 "반 틸(Cornelius Van Til [1895~1987])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변증학을 연구하였다."<sup>23)</sup> 제1차 유학 후 한국에 머물러 있는 동안(1936~38년) 한국교회가 변증학 분야에서 충실한 연구를 바탕으로 분명한 견해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정암은 국내에서 한창 이슈이던 칼 바르트(Karl Barth)의 위기신학을 비판하는 글을 이미 쓰기 시작했었다.<sup>24)</sup> 그에게는 성경에 계시된 기독교의 진리를 해석하는

21) 원래 박형룡과 박윤선의 공저로 출판된 『표준성경주석』, 고린도후서는 사실상 정암이 혼자 쓴 것이었다 (박윤선, "박윤선과의 인터뷰," 『기독교신보』, 1979년 4월 7일). 박형룡이 편집책임 맡았던 『표준성경주석』 시리즈의 배경에 관해서는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153~160쪽을 참조하라.

22) 박윤선, "Transcript, 1938~1940,"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참조.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166쪽).

23)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87쪽.

24) 박윤선, "발트의 성경관에 대한 비평," 『신학지남』, 19/4 (1937년 7월): 31~34

일뿐 아니라 방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였다. 그런데 정암은 반 틸의 변증학에서 바르트를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유학을 반 년 남겨둔 시점(1939년 4월)에서 『프레스비테리안 가디언』(Presbyterian Guardian) 지(紙)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변증학 교수인 반 틸 박사의 변증학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그는 기독교 유신론(Christian theism)을 철저하게 철학적으로 변증함으로 모든 인간의 체계(칸트와 플라톤의 체계를 포함하여)가 의지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반 틸 박사야말로 현대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폭탄을 터뜨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 위대한 신학자는 우리가 어떻게 모든 비기독교적 공격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 사람이다. 그의 체계는 단순한 인간의 사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계시된 방어의 체계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편이다. 주께서 한국에서 그의 진리를 방어하는 데 이 방법을 사용하시기를!<sup>25)</sup>

실제로 정암은 귀국한 후 반 틸의 변증학을 사용하여 신정통주의와 동양종교를 위시한 모든 비기독교 철학과 종교를 논박하였다. 처음에는 반 틸의 인식론이 그에게 바르트의 '신신학'을 대항하기 위한 무기로서 흥미를 끌었으나, 점차로 모든 비기독교 사상과 신학들을 비평적으로 조망하며 성경의 계시를 해석하는 근본 관점이 되었던 것이다. 정암은 1965년 4월 반 틸의 70회 생일을 맞아 기고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쪽; "칼 발트의 계시관에 대한 비평," 19/5 『신학지남』 (1937년 9월): 32~35쪽.  
25) Yune Sun Park, "The Korean Church and Westminster Seminary," *The Presbyterian Guardian* (April 1939), p. 72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167~168쪽에서 재인용).

그에만 털의 신학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신학이다. 그는 이것을 나에게 나누어주었다. 나는 그의 신학을 알게 되어 주께 감사한다. 그의 형이상학과 변증학은 나에게 진정한 기독교 유신론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었다. 특별히 1938~39년에 내가 “위기신학”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독교적 계시관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 주는 계기가 되었다. 1936년 8월 이래로 나는 성경의 주석을 쓰고 있는데, 이 작업에서 반 털 박사에게 빚진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성경으로부터 도출된 진정한 기독교 철학이 없다면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없다. 인간의 자율성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한다.<sup>26)</sup>

제2차 웨스트민스터 유학에서 정암이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반 털에게서 “진정한 기독교적 유신론/계시관”을 배운 것이었다. 이것은 특별히 1938~39년에 반 털의 지도 아래 “위기신학”이란 제목으로 변증학 소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얻게 되었다. 반 털의 인식론적 원리는 그 후 정암의 주석작업과 성경신학의 근간을 형성하였다.<sup>27)</sup> 우리가 조직신학자로서 “반 털의 주된 [사상적] 원천이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였다”는 사실과, 반 털이 프린스턴 학창시절에 그와 같은 화란계 이민출신인 “게르할더스 보스(Geerhardus Vos)와 가까운 친구”였다는 사실을 상기하면,<sup>28)</sup> 정암이 왜 이 두 화란 신학자

26) Yune Sun Park, “Personal Touch,” *The Presbyterian Guardian* (April 1965), p. 54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168-169쪽에서 재인용).

27) 정암은 1976년에 출판한 그의 『성경신학』 초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먼저 한 가지 말해 두는 것은 이 논문의 철학적 원리들만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변증론 교수 반 털(Cornelius Van Til) 박사의 저서 『기독교인식론』(*The Defense of the Faith: Christian Epistemology*)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변증은, 인간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알게 된다고 강조한다.”(『성경신학』 [서울: 영음사, 1976=2001], 11쪽).

28) J. M. Frame, *Cornelius Van Til: An Analysis of His Thought*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1995), p. 20. J. T. Dennison, Jr., “Geerhardus Vos,” in: W. A. Elwell/J. D. Weaver (eds.), *Bible Interpreters of*

들을 그토록 신뢰하며 의지하였는지 쉽게 납득할 수 있다.

## 2. 화란 자유대학에서의 유학

정암은 1953년 10월, 부산 고려신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Vrije Universitet)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가 만 48세의 나이에 굳이 생소한 북유럽을 택하여 공부하려 했던 목적이 단지 신학교 교수로서 필요한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만일 그랬다면, 정암을 잘 알고 높이 평가한 웨스트민스터로 가는 것이 그 목적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성취할 수 있는 길이었을 것이다. 오히려 정암의 더 큰 목적은 20년 가까이 책들을 통해서만 알고 흠모해온 개혁신학자들의 본향을 찾아가 뿌리 깊은 칼빈주의 신학의 전통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고 체험하려는 것이었음에 틀림없다.<sup>29)</sup>

그러나 화란 유학은 처음부터 내내 고초의 연속이었다. 우선 그 기간에 그와 고국에 떨어져 있는 가족이 모두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였다.<sup>30)</sup> 또 북구의 흐리고 습한 기후가 그의 건강을 해쳤고, “산을

*the 20<sup>th</sup> Century: A Selection of Evangelical Voices* (Grand Rapids: Baker, 1999), pp. 82-92도 참조하라.

29) 정성구, “박윤선 목사의 신학과 설교 연구 - 그의 설교에 나타난 칼빈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박윤선의 생애와 사상』 (서울: 합동신학교출판부, 1995), 392쪽은 정암의 화란유학 동기를 “반 털에게서 배운 화란개혁주의 신학과 성경해석학을 더 깊이 연구하려는 열정 때문”이었다고 지적한다. 비교. 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1946~1996)』 (부산: 고려신학대학원 출판부, 1996), 91쪽: “그정암은 매체를 통해 미국의 칼빈주의 신학의 핵심을 붙들었고, 반 털을 통해 화란의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에 매혹되어 1953년에는 화란 자유대학으로 갔다.”

30) 한부선이 갈브레이드(John Galbraith)에게 1953년 5월 29일에 보낸 편지에는 정암이 “여행 경비를 제외한 모든 재정 지원을 얻어 네덜란드 자유대학의 입학 허가를 받았다”고 쓰고 있으나 서영일은 이 점에 관하여 의사소통의 오해가 있었으리라 추정한다(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261-262와 그곳의 각주 279와 283을 보라).

전혀 볼 수 없는” 평지의 풍경은 향수병을 일으켰다.<sup>31)</sup> 더구나 그가 기대하고 찾아온 화란의 개혁교회는 기도와 따뜻함이 없는 “메마른” 교회였다. 아마 의사소통의 장애도 거기에 한몫 했을 것이다. 영어와는 달리 화란 말은 오로지 책으로만 지습했으므로, 현지 사람들과 즉시 자유롭게 회화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도교수이던 스킵퍼스(R. Schippers) 박사는, 미국의 우호적인 교수들과 달리 정암 자신과 그의 연구에 애정과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sup>32)</sup>

그래서 정암은 자서전에서 이 기간을 회상하며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훗날 깨닫게 된 그때의 귀중한 성과를 언급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화란 자유대학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 고생은 잊을 수가 없다. 그 당시 생활을 회고하면 화란 유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고달팠다. 더욱이 그때 화란 개혁교회의 형편은 매우 메말라 나에게 위로를 주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화란에서 머문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화란교회의 깊이를 몰랐던 탓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에 와서 생각하면 화란 유학도 주석 사업에 매우 유익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어렵고 고달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화란 유학이 아니었다면 산구약 주석 저술에 진리를 깨닫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이다.<sup>33)</sup>

31) 정암이 한부선에게 1954년 1월 8일에 보낸 편지: “..... 이곳에서는 거의 항상 흐린 날씨가 계속됩니다. 오늘은 비가 옵니다. 며칠 전에는 눈이 왔습니다. 더욱이 이곳에서는 산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국과는 다릅니다. 때로 나는 외로움을 느끼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습니다. 미국 사람을 만날 때면 따뜻한 마음으로 나의 가슴이 뻗습니다. 아마 내가 미국에서 몇 해 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262쪽 각주 286에서 재인용).

32) 정성구, “박윤선 목사의 신학과 설교 연구,” 393은 스킵퍼스가 “전형적인 귀족형”에다 “화란의 교육부장관을 지낼 정도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다고 설명한다.

자유대학에 머무는 동안 정암의 신분은 정식으로 등록된 학생이 아니라 “지도교수의 인도에 따라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특별학생”이었던 것 같다.<sup>34)</sup>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항상 그러했듯이 최선을 다해 학업에 정진하였다. 거기서 그는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서적들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폭넓고 깊이 있게 탐독하였을 것이다. 일찍부터 애독해왔던 바빙크(H. Bavinck)와 그레이다누스(S. Greijdanus) 외에도<sup>35)</sup> 화란에서 귀국한 후 4년 동안(1954~58년) 발간할 신약주석들(로마서, 바울서신, 히브리공동서신, 요한복음) 가운데 자주 인용하며 언급하게 될 학자들인 호로셰이드(F. W. Grosheide), 보스(G. Vos), 리더보스(H. N. Ridderbos), 스킬더(K. Schilder), 반 퀘위언(J. A. C. van Leeuwen), 바우마(C. Bouma) 등의 저서를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읽은 것 같다.<sup>36)</sup> 그 당시 스킵퍼스의 조교였던 바아르다(T. Baarda) 교수는 정암이 그때 호로셰이드의 신약주석이나 카이퍼(A. Kuyper)의 신학사전(*Encyclopaedie der heilige Godgeleerdheid*)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sup>37)</sup> 정암은 화란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한 적이 없다. 아마 정암이 강의시간 외에도 계속 화란 책들을 읽으면서 요점을 우리말로 정리해두거나 매달 고국에 『포수

33) 박윤선, “나의 생애와 신학,” 39쪽.

34)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263쪽.

35) 홍치모,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박윤선 신학,” 293쪽은 정암이 해방 이후 “만주에서부터 고향인 평북 철산으로, 그리고 38선을 넘어 서울에 오기까지 바빙크의 『교리학』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 그리고 주석가 그레이다누스의 『계시록 주석』은 소중하게 보관하면서 가지고 왔다”고 증언하였다.

36) 정암은 그의 『요한복음 주석』 초판(부산: 성문사, 1958) “머리말”(4)에서 요한복음의 정경성 문제를 다루면서 자신이 호로셰이드(F. W. Grosheide)에게 많은 빛을 지고 있는데, 자유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와 개인적인 교제를 갖고 함께 기도하는 영광을 누렸다고 소개한다. 그러나 제2판에서는 이 말이 빠졌다.

37)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263쪽과 그곳의 각주 289를 보라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신학교수 몬츠마(J. A. Montsma)가 서영일에게 1991년 2월 6일에 보낸 편지).



군」지(紙)의 원고를 써 보내는 모습을 그렇게 본 것인 듯하다.

온갖 어려운 환경에 굳건한 자세로 맞서 끝까지 결실을 거두려고 했던 정암의 화란 유학은 아내가 돌연히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자 중단되어,<sup>38)</sup> 그는 1954년 3월에 귀국하였다. 정암이 네덜란드에서 머문 기간은 반 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그의 학문이 어떤 결정적인 진보나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화란 유학이 아니었다라면 신구약 주석 저술에 진리를 깨닫는 데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는 정암 자신의 평가를 존중한다면, 이 짧은 화란 방문이 이전 주석작업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그 작업을 좀더 풍요롭게 함으로써 “매우 유익한 것”이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특별히 그는 화란 개혁자들의 원전을 직접 읽고 사용한 최초의 한국 학자로서<sup>39)</sup> 당대 신학의 학문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로써 정암의 외국 유학 기회가 완전히 끝나고 다시 없었던 것은 한국교회를 위하여 펴 아쉬운 일이다.

정암이 귀국한 후 스킵퍼스(R. Schippers) 교수는 아내의 사고사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논문을 끝내고 규정된 시험을 통과하면 학위를 줄 수 있다”는 학교측의 결정을 알려 주었다.<sup>40)</sup> 그러나 정암

38) 정암의 부인 김영선(金英善)은 1954년 3월 18일 어떤 만취한 미 해병이 운전하던 트럭에 희생되었다. 그녀는 불과 며칠 전에 남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단호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었다: “나를 위하여 기도만 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면 돌아옵니다. 성령 충만히 받기 전에는 안 돌아옵니다. 성령 충만히 받지 못하면 교회에 나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면 가족을 만나 보는 것보다 좋습니다. 당신도 나를 만날 날을 도무지 기다리지 마시오…… 편지를 너무 기다리지 마시오”(박윤선, “화란에서: 사모님께 온 박교장의 편지,” 『파수군』, 1954년 3월, 34;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264쪽에서 재인용).

39) H. Conn, “Studies in the Theolog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V),”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May 1968), p. 111; 오병세, “박윤선 신학이 한국 주경신학에 미친 영향,” 301~302쪽.

40) 스킵퍼스(Schippers)가 박윤선에게 1954년 5월 18일에 보낸 편지; 『파수군』, 1954년 6월, 26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265~266쪽에서 재인용).

은 논문을 마치겠다고 자유대학에 보낸 약속을 그로부터 5년 후인 만 54세가 될 때까지 이행할 틈이 없었다.<sup>41)</sup> 1959년 12월 26일에 미국으로 떠날 때, 논문은 한국어로 거의 다 완성된 상태였고, 화란으로 가기 전에 먼저 웨스트민스터 도서관에서 “새로운 자료들을 보충하여 영어로 번역”하려고 계획했다.<sup>42)</sup> 다음해 6월 정암은 자신의 논문 ‘신약과 이교주의’(The New Testament and Paganism)의 영문 초안을 미국에서 자유대학으로 보냈다.

스킵퍼스로부터 즉시 온 회답은 부정적이었다.<sup>43)</sup> 정암은 자유대학이 그의 논문의 최종본이 아니라 초고 중 일부를 놓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크게 실망하였다. 정암은 지도교수가 그 부분을 읽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조언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sup>44)</sup> 이 논문의 초고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논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암의 저서들을 미루어 생각할 때, 그의 논문 기술 방식이 분석과 비평과 자료제시를 통한 ‘논증’의 방식보다는 직관과 종합적 판단에 근거한 고백적 서술에 가까워 자유대학의 교수진들이 ‘학문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sup>45)</sup> 하지만 그 글이 단지 초고에 불과했고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

41) 이 5년 동안 정암은 다음 4권의 주석을 차례로 출판하였다: 로마서(1954년), 바울서신(1955년), 히브리서공동서신(1956년), 요한복음(1958년).

42) 박윤선이 반 틸(Van Til)에게 1960년 1월 2일에 보낸 편지(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266쪽에서 재인용).

43) 스킵퍼스가 박윤선에게 1960년 6월 8일에 보낸 편지: “…… 이 논문 작업은 우리 교수진이 요구하는 학문적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우리 전 교수들이 만장일치로 판단하였습니다…… 당신의 남은 삶 동안 당신의 사역을 한국에서 확장시켜서 젊은 세대의 학생들이 당신이 하던 일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입니다”(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266~267쪽에서 재인용).

44) 박윤선이 반 틸(Van Til)에게 1960년 6월 10일에 보낸 편지(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267쪽을 참조하라).

45) 정암의 저작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성격의 원인을 그의 ‘신(新)유학’(Neo-Confucianism)적 배경으로 돌리는 서영일의 주장(『박윤선의 개혁신학

아 보완해나가려는 것이었다면, 과연 지도교수의 태도와 결정이 합당하고 정당하였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sup>46)</sup>

비록 정암은 이 때 화란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데 실패하였으나, 그로부터 꼭 20년 후(1979년), 그의 가슴에 개혁주의 신학을 आरो세겨 준 모교 웨스트민스터는 필생에 걸쳐 신구약성경주석 완간이라는 전대미문의 위업을 달성한 '학문적' 공헌을 높이 평가하여 그의 머리에 '명예박사'의 관을 씌워 주었다. 그날 정암은 "한국 목회자들을 위하여 학문적으로 뛰어난 한국어 성경 주석을 저술한" 인물로 소개되었고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성서학자"로 인정받았다.<sup>47)</sup>

### 3. 정암의 저서들에 언급된 화란신학자들

지금부터는 정암의 주경신학에 영향을 미친 화란신학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고찰하기로 하자. 그가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학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려고 한다. 첫째는 정암의 책에서 화란학자들의 진술과 문헌을 인용하고 언급한 빈도수(頻度數)를 정량적(定量的)으로 계측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정암 신학의 바탕과 근간을 형성하는 주요 사상의 관점에서 개별 학자들의 영향을 정성적(定性的)으로 분석

연구, 194~197쪽)은 매우 흥미롭고 본격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특별히 학문에서 신유학은 근원을 중요시함으로써, 다른 이들의 입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증거를 대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단지 주자의 말에 호소하는 것만이 권위로 인정되었다. 바로 이 점이 박윤선의 신학을 연구하는데 중요하다"(195쪽).

46)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267쪽. 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127~129쪽도 참조하라.

47) "Four Eminent Leaders Recognized by Honorary Degrees," *The Bulletin* (of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Fall 1979, pp. 8-9.

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방법은 전자의 분석과정이 미처 포착하지 못하는 내면적 수용도(受容度)와 상관성을 조사하므로 양자를 상호 보완하여 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주로 다룰 정암의 저작물은 본래 8권으로 출간된<sup>48)</sup> 그의 신약성경 주석이다. 그 각 권의 명칭을 초판이 나온 연대순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요한계시록(1949, 1955, 1965, 1968년), 2) 공관복음(1953, 1964년), 3) 로마서(1954, 1962, 1969년), 4) 바울서신(1955, 1964, 1985년), 5) 히브리-공동서신(1958, 1965, 1987년), 6) 요한복음(1958, 1970년), 7) 사도행전(1961, 1977년), 8) 고린도전·후서(1962년).<sup>49)</sup> 그러면 이제 첫째 분석 작업을 시작해보자.

#### 3.1 언급의 빈도에 따른 정량적 분석

이 논문의 끝에 첨부한 도표 - "(별첨자료) 정암의 신약성경 주석에 언급(인용)된 화란신학자들" - 는 정암이 신약성경 주석 각 권에서 화란신학자들을 '언급'하고 '인용'한 수치와 그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맨 우측의 두 칸은 정암의 『성경신학』(2001=1971)과 『개혁주의교리학』(2003)의 '인명색인'에 나타난 각 학자들의 언급 횟수를 보여주고 있다.

성경주석의 통계 수치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전체적인 '언급' 횟수를 먼저 기록하고 그 결의 소괄호 안에는

48) 정암의 신약성경 주석은 원래 8권의 양장(두꺼운 표지)으로 출판되었으나 1985년부터는 13권의 보급판(종이 표지)으로 나오기도 했다. 보급판에서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과 바울서신이 각각 상하 2권으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히브리서와 공동서신이 각각 분리되었다.

49) 괄호 속에 나열된 숫자들은 초판, 개정1판, 개정2판, 개정3판 등의 출판연도를 가리키고, 밑줄은 필자가 이 논문에서 사용한 각 권의 본문과 일치되는 출판연도를 표시한다.

‘인용’ 횟수를 표시하였다. 여기서 ‘언급’은 ‘인용’을 포함하는 말로, 정암이 어떤 학자의 ‘이름’을 밝히는 모든 경우를 가리킨다. 그러나 ‘인용’은 어떤 학자의 이름을 밝힐 뿐 아니라 그의 말을 끌어와 사용하면서 (보통 인용부호로 표시하고 자주 화란어 원문을 덧붙인다) 그 출처가 되는 ‘문헌’까지 밝히는 경우이다. 둘째, 학자들의 이름은 성경의 ‘본문 해석’과 관련하여 언급·인용할 때만 계수하였고, 본문의 해석과 상관없이 (이를 테면 ‘서론’이나 ‘설교’의 예화 가운데) 등장하는 경우에는 통계 수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sup>50)</sup>

별첨 도표의 맨 왼쪽에는 정암이 저서에서 언급(인용)한 화란신학자들 17명의 이름을 빈도수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배열하였으며, 맨 윗줄에는 ‘칼빈’(Jean Calvin), 맨 아랫줄에는 (화란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학자들’의 언급(인용) 횟수가 대조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학자들의 명단 오른쪽에 붙은 합계란은 신약성경 주석 모든 책들 속에 언급(인용)된 횟수의 총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스킬더(Schilder)는 화란 신학자들 가운데서 6번째로 많이 언급되었고, 정암의 신약주석 가운데 총 30회가 언급되었으며, 그 중에서 17회가 인용되었다. 특별히 공관복음에서 10회 언급(그 중의 5회는 인용)되었고, 히브라공동서신에서는 6회 언급(그 중의 3회가 인용)되었다. 또 화란학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총 162회 언급(그 중에서 78회가 인용)되었고, 화란 이외 나라의 학자들은 총 182회 언급되었다(인용횟수는 확인되지 않았음).

그러면 먼저 개별 학자들에 관한 통계 자료를 도표에 제시한 순서에 따라 분석해보자. 정암이 신약주석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화란의 두 학자는 흐레이다누스(Seakle Greijdanus, 278[105회]와 흐

50) 그러므로 별첨 도표에서는 정암의 신약주석 각 책에서 ‘서론’과 ‘설교’를 제외한 본문의 ‘주석’(‘평주’ 및 ‘특주’ 포함) 부분에 나타나는 학자들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설교’ 가운데서도 가끔 본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학자들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계수에 포함시켰다.

로셰이드(Frederik Willem Grosheide, 218[95회])이다. 전자는 Calvin(221[42회])보다도 무려 50-60회 이상 더 자주 언급·인용되고, 후자는 Calvin보다 불과 3회 적게 언급되지만 인용은 오히려 63회나 더 많다. 최선두인 Greijdanus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언급·인용되고(96[46회]), 히브라공동서신(59[9])과 공관복음(52[36회])에서 50회 이상씩, 바울서신(34[7회])과 로마서(34[5회])에서는 30회 이상씩 나오다가, 나머지 책들(요한복음, 사도행전, 고린도전·후서)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차석을 차지한 Grosheide는 요한복음(75[37회])과 사도행전(64[19회])에서 유난히 많이 언급되고, 고린도전·후서(42[29회])와 히브리서(22[4회])에서 비교적 자주 나타난 후, 나머지 책들(공관복음, 로마서, 요한계시록, 바울서신)에서는 급격히 뒤로 물러난다.

빈도수가 100회 미만으로 현격하게 떨어진 셋째 순위는 교의학자 바빙크(Herman Bavinck, 95[65회])이다. 그의 『개혁교리학』(Gereformeerde Dogmatiek IV)은 정암이 화란어를 배운 직후부터 “애독함으로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기쁨”을 맛보게 한 책이고,<sup>51)</sup> 그래서 만주에서 고향을 거쳐 38선을 넘어 서울로 오기까지 소중하게 보관하면서 가지고 온 책이며,<sup>52)</sup> 생전에 정암이 “가장 좋아하던 책”으로 알려져 있다.<sup>53)</sup> 이것이 사실임을 입증하듯, 신약주석 전 권에서 Bavinck의 『개혁교리학』은 참고문헌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유일한’ 책이다. 또한 Bavinck는 교의학자이면서도 정암의 『성경신학』에서 Calvin을 포함한 모든 학자들 가운데 제일 많이(31회) 언급되고 있다. 게다가 작년(2003년)에 출간된 『개혁주의교리학』(이하부터는: 교리학)은 정암이 생전에 얼마나 Bavinck에게 깊이 경도(傾倒)되었는지 잘 보여준다. 거기서

51)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75쪽.

52) 위의 제21쪽과 그곳의 각주 35를 보라.

53) 박윤선, “원로와의 대화(7)”, 유진원과의 인터뷰, 서울 극동방송국에서 녹취, 1983년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248쪽에서 재인용).

Bavinck가 언급된 횃수(95회)는 단연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비교, Calvin 53회). 사실상 정암의 이 유작은 제목뿐 아니라 내용까지도 Bavinck의 대작(*opus magnum*)을 속속들이 닮아있다.<sup>54)</sup>

넷째로 많이 언급인용된 학자는 리더보스(Herman Ridderbos, 55[22회])이다. 그의 전체 언급횃수 가운데 거의 50%가 바울서신에 몰려있고(27[7회]), 약 27%는 로마서에 있다(15[4회]).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고린도전후서에서는 각각 5회 미만이며 히브라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에서는 전무하다. 『성경신학』에서는 Ridderbos가 Bavinck(31회), Vos(17회)의 뒤를 이어 셋째로 많이 등장한다(10회). 다섯째에 위치한 반 퀘위언(Jacobus A. C. van Leeuwen, 35[6회])은 특별히 바울서신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후(26[2회]), 공관복음에서 잠시 다시 나왔다(9[4회]), 다른 책들에서는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나 여섯째 순위를 잇는 스킬더(Klaas Schilder, 30[17회])는 공관복음(10[5회]), 요한복음(9[6회]), 히브라공동서신(6[3회]), 요한계시록(4[2회]), 사도행전(1[1회]) 등으로 더 넓게 분포되어 나타난다. Schilder는 조직신학자로서 『교리학』에서 Bavinck(95회)와 Greijdanus(11회) 다음으로 자주 언급된다(10회).

카이퍼(Abraham Kuyper, 29[11회])가 7위에 머문 것은 그의 지명도(知名度)를 생각할 때 의외라는 느낌이 든다. 만일 그가 요한계시록의 주석마저 쓰지 않았더라면,<sup>55)</sup> 이 대조표에서 11위까지 밀려났을

54) 김계성, “박윤선 박사의 개혁신학과 한국 신학사적 의의,” 『개혁주의교리학』, 753쪽: 박윤선 박사의 『개혁주의교리학』은 주로 화란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쓴 ‘개혁주의교리학’에서 나온 것이다…… 박윤선 박사에게 있어서 최종 권위는 바빙크였다. 그것은 바빙크의 신학이 가장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박윤선 박사의 『성경신학』이 게할더스 보스 박사의 저술에 크게 의존하였던 것과 유사한 구조이다.

55) A. Kuyper, *The Revelation of St.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64). (정암은 1931년에 화란어로 출판된 Kuyper의 요한계시록 주석을 1964년의 영역본으로만 사용한 것 같다.)

것이다. 정암이 그의 요한계시록 주석을 19(5)회 언급인용한 것을 제외하면, 그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각각 4회, 로마서와 고린도전후서에서 각각 1회 더 언급되었을 뿐이다. Kuyper에 대한 정암의 선호도는 『성경신학』(5회)과 『교리학』(6회)에서도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여덟째인 보스(Geerhardus Vos, 18[13회])는 복음서들(7[5회])과 요한계시록(4[3회])과 바울서신(4[2회])에서 조금 더 자주, 사도행전(2[2회])과 히브리서(1[1회])에서는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 정암의 『성경신학』 서문이 밝히듯이, Vos가 이 책에 기본 골격과 많은 내용을 제공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정암의 신약주석을 통틀어 채 20회도 등장하지 못한 점은 꽤 의외란 생각이 든다. Vos와 언급횃수에서 같지만 인용횃수가 그보다 적어 아홉째에 놓인 바우마(Cornelis Bouma, 18[3회])는 바울서신 중에서도 목회서신에서만 계속 나오다가(17[3회]),<sup>56)</sup> 요한복음에 1회 비치고 사라진다. 열째 자리를 잡은 스밀데(Egbert Smilde, 14[13회])는 요한복음(9[8회])과 요한계시록(4[4회])과 공관복음(1[1회])의 순으로 언급 인용되고 있다.<sup>57)</sup> 열한째의 빌렝가(Bastiaan Wielenga, 13[12회])는 사도행전에만 언급 인용되었다.<sup>58)</sup>

그 뒤를 따라 5회 이하로 언급된 12-17위의 학자들로서는 다이크(Klaas Dijk, 5[3회]: 공관복음 3[2회], 요한계시록 2[1회]),<sup>59)</sup> 정암의 화란 유학시절 지도교수였던 스킵퍼스(Reinier Schippers, 4[4회]: 요한복음 3[3회], 사도행전 1[1회]),<sup>60)</sup> 반 테르 뫼런(Ruurd Jan van der

56) C. Bouma, *De Brieven van den Apostel Paulus aan Timotheus en Titus*, *Kommentaar op het Nieuwe Testament 11* (Amsterdam: Van Bottenburg, 1942).

57) E. Smilde, *Leven in de Johanneïsche Geschriften* (Kampen: Kok, 1943).

58) B. Wielenga, *Van Jeruzalem naar Rome: De Ontwikkelingsgeschiedenis van de Christelijke Kerk naar de Handelingen der Apostelen I-III* (Kampen: Kok, 1928-1931).

59) K. Dijk, *Tussen Sterven en Opstanding, Over de Laatste Dingen 1* (Kampen: Kok, 1951).

Meulen, 요한계시록에만 4(2회),<sup>61)</sup>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 3(3회): 요한복음 2(2회), 사도행전 1(1회),<sup>62)</sup> 링날더(Arie Ringnalda, 요한계시록에서만 2(2회),<sup>63)</sup> 그리고 반 틸(Cornelius Van Til, 2(0회): 공관복음과 로마서에서 각각 1(0회),<sup>64)</sup> 등이다.

마지막으로, 단 1회씩만 언급되는 기타 화란학자들은 모두 11명인데, 요한복음(6명)에서는 알더스(Gerhard Charles Aalders),<sup>65)</sup> 반 헬더른(Cornelis van Gelderen),<sup>66)</sup> 세이븐스터(Gerhard Sevenster),<sup>67)</sup> 스멜릭(Evert Louis Smelik),<sup>68)</sup> 반 헤르베르덴(C. H. van Herwerden), 반 오스터세이(J. J. van Oesterzee)가, 사도행전(2명)에서는 히스뎀(Willem Hendrik Gispén)과<sup>69)</sup> 베르카우어(Gerrit Cornelis Berkouwer)가<sup>70)</sup>, 요한계시록(2명)에서는 루트허(Rutger)와<sup>71)</sup> 휘뜨링가(Vitringa)가<sup>72)</sup>, 그

60) R. Schippers, *Getuigen van Jezus Christus in het Nieuwe Testament* (Franeker: Wever, 1938).

61) R. J. van der Meulen, *De Openbaring in het Laatste Bijbelboek* (Utrecht: P. den Boer, 1948).

62) H. Dooyeweerd, *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II: The General Theory of the Modal Spheres* (New York: Presbyterian and Reformed, 1955).

63) A. Ringnalda, *Het Koningschap van Christus* (Kampen: Kok, 1939).

64) C. Van Til, *The Defense of the Faith*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55).

65) G. Ch. Aalders, *Het Boek de Prediker*, Commentaar op het Oude Testament (Kampen: Kok, 1948).

66) C. van Gelderen/ W.H. Gispén Jr., *Het Boek Hosea*, Commentaar op het Oude Testament (Kampen: Kok, 1953).

67) G. Sevenster, *De Christologie van het Nieuwe Testament* (Amsterdam: Holland, 1946).

68) E. L. Smelik, *De Weg van het Woord: Het Evangelie naar Johannes*, De Prediking van het Nieuwe Testament 4 (Nijkerk: Callenbach, 1948).

69) W. H. Gispén, *Het Boek Leviticus*, Commentaar op het Oude Testament (Kampen: Kok, 1950).

70) G. C. Berkouwer, *De Persoon van Christus*, Dogmatische studin (Kampen: Kok, 1952).

71) 검색 및 확인 불가능함.

리고 비올서신(1명)에서는 바델로안(Bateloan)이<sup>73)</sup> 각각 언급되고 있다. 이 가운데 Sevenster와 Van Gelderen은 『성경신학』에서 1번씩 더 언급되고, Berkouwer는 『교리학』에서 5회 등장한다.

다음으로, 도표에 나타난 통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요약해보자. 정암의 신약주석 전질에서 성경본문 해석과 관련하여 학자나 주석가들의 이름은 총 2,888회 언급되었다. 그 중에서 화란신학자들의 언급횟수는 총 834회로서 전체의 28.9%에 달한다(Calvin은 총 221회, 7.7%). 그러나 전체 총계에서 Calvin 한 사람을 제외하고 보면, 다른 나라 학자들(1,833회)과 화란학자들(834회)의 언급 비율은 1:0.45가 된다. 네덜란드 한 나라의 비율이 동서양을 망라한 모든 다른 나라들의 거의 절반을 점유하는 사실은 지나친 편중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화란신학이 정암신학에서 그만큼 비중이 높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평균 비율은 주석 각 권에 따라서 달라진다. ‘화란학자 의존도’가 가장 높은 책은 요한계시록으로서 총계(348회)의 46.6%(162회)이며, 기타 나라들(182회)과 비율도 1:0.89까지 상승한다. 둘째가 히브라공동서신으로 총계(307회)의 30.9%(95회)이며 다른 나라들(170회)과 비율은 1:0.56이 된다. 그 다음은 공관복음이며 해당 백분율과 비율은 30.8%, 1:0.46이다. 반면 화란학자 의존도가 제일 낮은 책은 로마서로서 18.8%와 1:0.26, 그 다음이 고린도전후서로 21.4%와 1:0.29이다.

‘학자’별로 보면, Calvin 외에 정암이 신약주석 모든 책에서 빠짐없이 언급하는 이는 Grosheide와 Bavinck뿐이다. 가장 많이 언급한 Greijdanus도 고린도전후서에서는 안 보이고, 4위의 Ridderbos는 히브라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에 빠져있다. 각 ‘권’(卷)별로 보면, 화란학자

72) 검색 및 확인 불가능함.

73) 검색 및 확인 불가능함.

들이 가장 골고루 분포된 책은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이 공관복음과 요한계시록, 그 다음이 사도행전이다. 화란학자들이 심하게 편중된 책들은 히브리공동서신,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바울서신 순이다.

이러한 분포와 편중 현상은 각 권마다 해당 학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암이 각 권별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학자는 공관복음(120회)에서 Greijdanus(52회, 43.3%), 요한복음(137회)에서 Grosheide(75회, 54.7%), 사도행전(95회)에서 Grosheide(64회, 67.4%), 로마서(59회)에서 Greijdanus(34회, 57.6%), 고린도전후서(47회)에서 Grosheide(42회, 89.3%), 바울서신(119회)에서 Greijdanus(34회, 28.6%)와 Ridderbos(27회, 22.7%)와 Van Leeuwen(26회, 21.8%), 히브리공동서신(96회)에서 Greijdanus(59회, 61.5%), 요한계시록(162회)에서 Greijdanus(96회, 59.3%) 등이다. Greijdanus는 5권의 책에서, Grosheide는 3권의 책에서 최고 의존도를 나타내며, 그들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책은 고린도전후서(89.3%)이고, 가장 낮은 책은 바울서신(28.6%)이다.

### 3.2 사상의 수용 및 의존도에 따른 정성적 분석

지금까지 우리는 정암의 신약성경 주석에 나타난 화란학자들의 '언급·인용'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정암의 참조 습관을 그대로 말해주는 객관적인, 그래서 소중한 자료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통계의 수치만 따지는 '정량적' 평가 방식은 연구대상을 단지 특정한 몇 가지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통계의 설정 기준에 맞지 않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뿐더러 사람의 내적 태도나 동기 같은 요인은 파악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앞의 통계표가 설정한 기준을 벗어난 요소는 없는지, 또는 그 통계표가 미

처 반영하지 못한 정암과 화란신학자들 간의 내적 상관관계는 없는지 검토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개별 학자들의 '전공분야'를 감안해야 한다. 정암의 전공분야가 주경신학이므로 여기서 언급과 인용에 관한 통계는 신약 주석에만 국한했다. 따라서 이 통계에는 교의학자들의 실제 영향력이 주경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약학자들인 Grosheide와 Van Leeuwen이 주석의 통계에서는 각각 2위(218회, 26.1%)와 5위(35회)였으나, 『교리학』에서는 각각 10위(4회)와 12위 밑(0회)으로 밀려난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이 관점에서 살펴보면, 교의학자들인 Bavinck와 Schilder와 Van Til은 주석 통계에서 각각 3위(95회), 6위(30회), 17위(2회)였으나 『교리학』에서는 각각 1위(95회), 3위(10회), 4위(9회)로 뛰어오른 것이 눈에 띈다. 그러므로 정암이 이들의 신학 사상을 내적으로 수용한 정도는 주석 통계의 수치와 순위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짐작해야 한다. 사실상 정암에게 Bavinck는, 예외적으로 전공분야와 상관없이, 내적으로 가장 깊이 신뢰하고 의존한 화란신학자였다.<sup>74)</sup> 전체 화란신학자의 언급횟수에 대한 Bavinck의 언급비율이<sup>75)</sup> 신약주석에서 11.4%(3위), 『성경신학』에서 40.8%(1위), 『교리학』에서 58.3%(1위)라는 것은 그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는다.

Schilder는 주석에서의 언급비율(3.6%)에 비하면 정암에게 꽤 깊은 인상을 주었던 학자이다. 그는 특히 예수의 수난기사와 관련하여 정암의 사복음서 주석에 커다란 흔적을 남겼다.<sup>76)</sup> 그에 반하여,

74)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정암이 신약주석 내에서 Bavinck를 언급·인용하면서 그의 견해를 비판하거나 수정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 차영배, "박윤선 신학에 미친 화란 개혁신학의 영향," 49쪽: "결론적으로 고 박윤선 선생은 헤르만 바빙크를 보물처럼 여기신 것은 확실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75) 아하부터 개별 학자들의 '언급비율'은 모두 '전체 화란신학자들의 언급횟수에 대비한 백분율'임을 밝힌다.

76) 허순길(고려신학대학원 원장 역임, 1960년 정암이 고려신학교를 떠나기 직전에

Kuyper는 지명도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정암과 그렇게 각별한 관계를 맺은 것 같지 않다. 비록 그의 이름이 정암에게 화란어 자습 동기를 부여하는 데 일조하였으나,<sup>77)</sup> 정암이 다른 학자들보다 특별히 그의 저작에 더 매료되고 심취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Kuyper의 언급 비율은 신약주석에서 3.5%(7위), 『성경신학』에서 6.6%(4위), 『교리학』에서 3.7%(7위)에 그친다.

통계표에서 우리의 주의를 강하게 끌며 의혹을 일으키는 이름은 바로 17위에 올라있는 Van Til이다. 그는 공관복음과 로마서 주석에서 인용 없이 1번씩 언급되었고(0.2%)<sup>78)</sup> 『성경신학』에서도 그의 언급비율은 2.6%(2회)에 그칠 뿐이다. 이 통계 수치는 정암이 ‘Van Til의 변증학을 연구하기 위해 제2차 미국 유학을 떠났다’는 그 자신의 진술과 다른 이들의 증언을<sup>79)</sup> 의심케 만든다. 과연 그는 Van Til의 가르침과 영향을 받았으며 그 증거를 보이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변증학’(Apologetics)이란 학문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변증학은 교의학의 한 분야에 속하지만, 근본적으로 기독교 중

4년 이상 그의 조교로 봉직, 在 호주), 필자와의 이메일 인터뷰(2004년 6월 7일): “특별히 [박윤선] 목사님이 공관복음 주석을 쓰면서 Schilder의 Trilogy라 할 수 있는 *Christ on Trial*, *Christ in Suffering*, *Christ Crucified*를 즐겨 사용하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히 그의 언약신약에 큰 매력을 느끼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정암은 그의 주석 『공관복음』의 “제6부 고난편”(742-820)과 『요한복음』 후반부(389, 414, 426, 521-22, 525, 531-33, 544쪽)에서 K. Schilder, *The Schilder Trilogy* (I: *Christ on Trial*; II: *Christ in His Suffering*; III: *Christ Crucified*). Trans. from the Dutch by H. Zylstra (St. Catharines: Paideia, n.d.)의 “세 책에서 많이 참고하고 또 인용”하였다(『공관복음』 742쪽).

77) 위의 각주 3에서 인용한 정암 자신의 증언을 보라.

78) 박윤선, 『공관복음』 275쪽; 『로마서』 54쪽.

79)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87쪽; 홍치모,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박윤선 신학,” 291쪽; 박영희, “한국의 주경신학과 박윤선 주석의 의의,” 358-359쪽; 정성구, “박윤선 목사의 신학과 설교 연구,” 392쪽; 허순길, 필자와의 이메일 인터뷰(2004년 6월 7일): “박윤선 목사님도 Van Til의 신학에 매혹을 느끼고 화란신학에 큰 관심을 가져 1938년에 다시 미국에 가서 그에게 사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교를 지성적인 반론에 맞서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학문이며, 구체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어떤 요소들이 진실임을, 또는 적어도 허위가 아님을 증명하려는 시도다. 이런 변증학의 방법론과 목표는 성경본문의 의미를 역사적-문법적으로 캐고 밝히는 ‘석의학’(Exegetics)과 본질상 판이하다. 만일 어떤 주석가가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꾸 변증학의 논증들을 끌어다가 사용한다면, 그의 주석은 아주 이상한 책이 되고 말 것이다. 변증학의 기능은 오히려 성경해석자의 합당한 철학적 전제와 출발점을 형성하는 데 있다. 그 영향력은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안에서 끊임없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성경본문을 다룰 때든지 항상 먼저 주석가의 사고방향을 결정하고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신약주석에서 Van Til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도외시한 정암이 일찍이 “나는 그의 신학을 알게 되어 주께 감사한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성경의 주석을 쓰고 있는데, 이 작업에서 반 킬 박사에게 빚진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공포한<sup>80)</sup> 사실에 그리 놀라거나 곤혹스러워 할 필요가 없다. 정암은 Van Til에게서 “성경으로부터 도출된 진정한 기독교 철학”을 배웠고, 그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인식론적 출발점이라고 확신하였다.<sup>81)</sup> 사실상 정암이 자신의 성경해석 및 신학방법과 관련하여 늘 표어처럼 사용했던 “계시의 존사색”(啓示依存思索)과 “순타율주의”(純他律主義)라는 말은<sup>82)</sup> 곧 Van Til이 발전시킨 ‘기독교 유신론적 인식론’(a Christian theistic epistemology)을<sup>83)</sup> 모토화한 것이며, 그 사상은 바로 “Van Til의 주

80) *The Presbyterian Guardian* (April 1965), 54쪽 (위의 각주 26을 보라).

81) 위와 같은 곳.

82) 박윤선, 『성경과 신학』 1 (1983), 5-6쪽; 『성경과 나의 생애』, 95쪽: “신학은 성경을 교리적으로 사색하는 학문이다…… 신학의 근거와 기준(規準)은 성경뿐이다…… 신학자들은 성경의 교훈대로 순타율주의(純他律主義)에서 말해야 된다…… 그러므로 계시의존사색(啓示依存思索)만이 그의 지켜 나갈 궤도이다”; 『성경신학』, 11-18쪽. 참조 권성수, “박윤선 박사의 성경해석학,” 210, 212쪽.

요 원천"이었던<sup>84)</sup> Bavinck로 거슬러 올라간다.<sup>85)</sup>

정암은 공관복음 주석에서 “중보자 그리스도와 인간고”(마 11:25~30)라는 제목으로 4차례 연속되는 긴 “논문설교”를 실었는데, 그 서두에 “이 논문의 철학적 원리들”이 “Van Til이 저술한 『기독교변증철학』에 의중(依從)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sup>86)</sup> 로마서 주석에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매 장에 바르트(K. Barth)의 해석(Der Römerbrief)을 비판하는 “평주”를 실었는데,<sup>87)</sup> 그 평주들에서 학자들을 언급한 횟수(개혁주의 학자들 9회, Luther 6회)는 통상보다 아주 적은 편이다.<sup>88)</sup> 정암이 거기서 다른 학자들의 권위를 빌어오지 않고 바르트의 신학을 매우 독자적으로 비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

83) C. Van Til, *A Survey of Christian Epistemology* (Philadelphia: Presbyterian & Reformed, 1967), p. 116: “기독교 유신론의 근본적인 주장은 단지 다음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현재 알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알 수가 없다. 이미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라 할 때 우리는 삼위의 자족적인 신을 의미하고 또한 인간과 세계를 위한 그의 계시를 의미한다.” 한상화, “Cornelius Van Til의 인식론과 Postmodern 상대주의: 형태적 병행성과 근본적 차이점,” 『ACTS 신학과 선교』 1 (1997), 237~258쪽을 참조하라.

84) 위의 제18쪽과 그곳의 각주 28을 보라.

85) 정암은 그의 『성경신학』, 11~18쪽에서 “제1장 성경을 바로 아는 성경신학의 기본원리”의 첫째로서 “계시의존사색”을 말하는데, 이 사상의 “철학적 원리”가 Van Til에 의거한 것임을 밝혔고(11~12쪽), Bavinck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였다(17~18쪽). 홍치모,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박윤선 신학,” 297쪽: “이 사교계시 의존사색의 논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변증학 교수였던 Van Til과 화란의 신학자 H. Bavinck의 이론을 소화시켜서 표현한 말이다.”; 허순길, 필자와의 이메일 인터뷰(2004년 6월 7일): “그정암이 특별히 즐겨 사용한 어휘 ‘타율주의’, ‘성경의존사색’은 …… 화란의 전통적인 개혁주의신학을 이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88~89쪽도 참조하라.

86) 박윤선, 『공관복음』, 275~311쪽: 275쪽.

87) 박윤선, 『로마서』, 48~58, 81~88, 112~118, 143~146, 179~181, 201~203, 225~226, 256~258, 274~277, 291~297, 312~315, 334~337, 364~366쪽 (14, 15, 16장에서는 평주가 빠져있음).

88) Calvin(4회: 87, 274, 293, 294쪽); Warfield(2회: 54, 202~203쪽); Bavinck(1회: 294쪽); Greijdanus(1회: 180쪽); Van Til(1회: 54쪽). 비교. Luther(6회: 81, 114, 115, 274, 276, 277쪽).

분에서도 Van Til이 정암에게 직접적으로 끼친 영향은 막대하리라 예상된다.<sup>89)</sup> 우리는 정암의 제2차 웨스트민스터 유학의 동기가 곧 바르트의 ‘위기신학’에 대항하기 위하여 Van Til의 변증학을 연구하려는 것이었고, “특별히 1938~39년에” Van Til의 지도 아래 “위기신학에 관하여 연구”하며 소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그 해답을 얻게 되었던 사실을<sup>90)</sup>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감안할 때, 그리고 Van Til의 언급비율이 정암의 『교리학』에서는 4위(9회, 5.5%)로 뛰어오르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앞의 주석통계 수치에도 불구하고, Van Til을 Bavinck의 다음 순위에 놓지 않을 수 없다. 사상의 수용도와 의존도에 있어서 Van Til은 확실히 정암에게 둘째로 크고 중요한 교의학자였다.

사상의 수용과 의존의 관점에서 감안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개별 학자들의 ‘인용 빈도’와 ‘인용 내용’이다. 똑 같은 통계 수치라도 어떤 학자의 이름만 대고 지나가는 ‘언급’과 그 학자의 진술을 끌어다 사용하며 출처를 밝히는 ‘인용’은 마땅히 무게를 다르게 산정해야 할 것이다. 또 동일한 ‘인용’이라도 해당 학자의 진술을 찬동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와 그 진술을 반대하며 부정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암이 신약주석에서 화란학자들을 ‘인용’한 전체 횟수(383회)를 ‘언급’한 전체 횟수(834회)로 나누면 전체 평균 비율은 0.46이 나온다. 각 학자별 ‘인용비율’(인용횟수÷언급횟수)을 산출해보면, 대개 언급횟수가 18회 미만으로 낮은 학자들의 인용비율이 높다(최고는 Smilde[0.93]와 Wielenga[0.92]). 언급횟수가 18회 이상인 아홉 학자들의 인용비율을 내림차순으로 꼽으면 다음과 같다: Vos(0.72),

89) Barth의 『로마서 주석』에 대한 정암의 ‘평주’들이 구체적으로 Van Til의 저술(들)을 어디서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고찰하는 일은 차후에 별도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90) 위의 제15~18쪽을 보라.



Bavinck(0.68), Schilder(0.57), Grosheide(0.43), Ridderbos(0.40), Kuyper(0.379), Greijdanus(0.377), Van Leeuwen(0.171), Bouma(0.167). 이들 중에서 전체의 평균 비율(0.46)을 넘는 학자들은 Vos(0.72), Bavinck(0.68), Schilder(0.57) 세 사람뿐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Bavinck와 Schilder의 무게를 의식하게 되는 동시에 Vos도 언급횟수가 주석에서는 매우 낮지만(8위, 18회), 『성경신학』(2위, 17회)과 『교리학』(5위, 8회)에서 상승한 점을 함께 감안할 때 정암이 다른 학자들보다 더 기꺼이 수용하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암은 주석들에서 당시 화란 개혁주의 학자들을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인용하며 그들의 해석을 받아들인다. 정암이 그들의 견해를 비판하거나 거부한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그런 드문 예들은 정암이 그렇게 존중하고 높이 평가했던 화란신학자들을 결코 맹종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그럼 여기서 그러한 예를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자.

Greijdanus는 통계표가 말해 주듯이 정암이 신약주석에서 가장 애호하는 화란주석가이다. 그는 『교리학』에서조차 둘째로 많이 언급될 만큼 특별한 대우를 받은 신약학자이다. 정암은 “성경해석방법론”을 논할 때 Greijdanus의 『성경해석의 성경적 원리』라는 책을 초역(抄譯)하여 제시하였다.<sup>91)</sup> 영미와 독일 학자들의 해석을 비평하기 위해 Greijdanus를 인용하기도 하였다.<sup>92)</sup> 로마서 평주에서는 Barth의 그릇된 해석과 대조하여 Greijdanus의 해석을 인용한다.<sup>93)</sup> Greijdanus를 이렇게 의존하면서도, 정암은 로마서 7장의 ‘나(ego)’를 그와 달리 해석한다.<sup>94)</sup>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2:14에 나오는 큰 독수리의 ‘두

91) 박윤선, “성경해석방법론,” 『신학지남』 33/2 (1966년 3월): 14-29쪽 (= 박윤선, 『성경주석 요한계시록』, 18-35쪽).

92) 박윤선, 『공관복음』, 515쪽.

93) 박윤선, 『로마서』, 180쪽.

94) 박윤선, 『로마서』, 217쪽.

날개’에 관한 Greijdanus의 영적 해석을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한 다음 자신의 해석을 힘있게 주장하기도 한다.<sup>95)</sup>

Grosheide는 정암의 신약주석에서 둘째로 많이 언급하는 신약학자이다. 그런데 정암은 야고보서 4:11에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이유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Grosheide와 Calvin의 해석을 차례로 인용한 다음에 “이보다 더 적합한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sup>96)</sup> 심지어 정암은 빌레몬서 1절에서 빌레몬을 일반 신자가 아니라 교역자로 본 Calvin의 해석이 “옳지 않다”고 거부하기도 한다.<sup>97)</sup> 목회서신 전체에 걸쳐서 정암은 특히 Bouma의 주석을 매우 권위 있게 사용한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12의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어구 에 관해서는 Bouma의 해석을 인용한 후 그보다 더 “옳은 것”으로 판단되는 자신의 해석을 제시한다.<sup>98)</sup>

Sevenster는 정암의 신약주석에서 1회, 『성경신학』에서 1회 등장하는 화란 신약학자이다. 정암은 요한복음 주석의 “특별참고”(성경의 권위에 대하여)에서 그의 저서 『신약의 그리스도론』(*De Christologie van het Nieuwe Testament*)을 다루는데, 그가 “특별히 근년에 나타난 중간주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양식사학과에 부분적으로 동조하는 점들을 지적하고 비평하였다.<sup>99)</sup> 정암이 그 당시에 새로운 학적 견해를 비평하면서 다른 학자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의 이 비평은 독자적인 듯하다.

Ridderbos가 정암의 ‘성경신학’에 기여한 몫은 지대하다. 그의 저서 3권은 정암의 『성경신학』 안에 그대로 번역 편집되었고,<sup>100)</sup> 정암의

95) 박윤선, 『요한계시록』, 238쪽.

96) 박윤선, 『히브리서·공동서신』, 76쪽.

97) 박윤선, 『바울서신』, 701쪽.

98) 박윤선, 『바울서신』, 524쪽.

99) 박윤선, 『요한복음』, 338-339쪽.

100) 박윤선, 『성경신학』(서울: 영음사, 1971=2001), 특히 5(머리말)와 11쪽을 보라. “편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 책에서 정암이 번역 편집하는 데 사용한 책

“천국론”의 근간을 형성하였다.<sup>101)</sup> 정암은 Ridderbos를 로마서 주석에서 불트만(R. Bultmann)의 그릇된 학설을 시정하면서 인용하기도 했고,<sup>102)</sup> Ridderbos의 해석을 Greijdanus의 것보다 더 옳은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sup>103)</sup> 그러나 정암은 이러한 Ridderbos의 신학을 완벽한 것으로 과신하지 않았고, 따라서 무턱대고 재현하지도 않았다. 그는 공관복음 주석의 “설교: 메시아론(마 16:13-21)”에서 ‘메시아 신분의 은닉 문제’에 관한 Ridderbos의 해석을 소개한 후 끝에 가서 자신의 통찰력 있는 해석을 추가하고 있다.<sup>104)</sup> 더 나아가 정암은 Ridderbos의 ‘성경관’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아직 국내외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이미 1970년의 논문에서 그 사실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비판하였다.<sup>105)</sup>

## 결 론

한글 산구약성경 주석을 최초로(1979년) 완필한 주경신학자 정암(正岩) 박윤선은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을 한국교회에 처음으로 소개하고 접목한 인물이기도 하다. 교회사와 신학사에 오래 남을 이 두 업적은 창조주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뛰어난 언어능력, 끊임없는 탐구

들은 다음의 4권이다: G. Vos,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48); H. N. Ridderbos, *Paulus en Jezus* (Kampen: Kok, 1952); idem, *De Komst van het Koninkrijk* (Kampen: Kok, 1950); idem, *Zelfopenbaring en Zelfverberging* (Kampen: Kok, 1946).

101) 박윤선, 『요한복음』, 133~141쪽(“특별참고: 천국론”)을 보라.

102) 박윤선, 『로마서』, 289~290쪽을 보라.

103) 박윤선, 『로마서』, 217쪽을 보라.

104) 박윤선, 『공관복음』, 444~449쪽: 449쪽.

105) 박윤선, “헬만 리델보스의 성경관 - 개혁성경관,” 『신학지남』 37권 4호 (1970. 12): 9~15쪽. 권성수, “박윤선 박사의 성경해석학,” 『박윤선의 생애와 사상』 173~216쪽: 190~191쪽은 정암의 이 지적을 그의 “선견지명으로 평가”하였다.

력,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와 성경주석 사역에 대한 불타는 사명감이 한데 어우러져 맺은 화귀한 열매였다.

이제 ‘정암신학의 배경’으로서 화란 개혁주의 신학이 그에게 미친 영향과 그 의미를 정리하기로 하자. 먼저, 정암이 어떻게 화란신학과 관계를 맺었고,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관하여 우리가 본문에서 밝혀낸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보자:

1. 정암은 제1차 웨스트민스터 유학기간(1934~36년)에 화란의 칼빈주의 신학자들의 사상을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틈틈이 화란어를 자습하였고, 그 결과 Bavinck를 위시하여 여러 화란학자들의 저서를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다.

2. 제1차 유학 목표는 ‘성경 원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4학기 동안 2개의 신학과목 외에 12개의 성경 관련과목과 9개의 어학과목(히브리어 5, 아랍어 2, 헬리어 1, 아랍어 1)을 이수하였고, 어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3. 소년기에 (반복과 암송에 의한) 한학(漢學) 수련을 통해 탁월한 학습능력을 체득하였고, 그 같은 방식으로 청년기까지 일본어, 영어, 헬리어, 히브리어 등을 차례로 습득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4학기의 유학기간 동안 여러 개의 고전어 코스를 이수하면서도 따로 화란어를 자습하여 원전을 독해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었다.

4. 제1차 미국 유학에서 특별히 메이첸(J. G. Machen)의 지도 아래 ‘개혁주의 신학’을 확실히 전수하였고, 귀국 후 2년간은 성경원어를 강의하면서 고린도후서 주석을 집필하였다.

5. 제2차 미국 유학(1938.8~1939.10)의 목표는 ‘성경원어’와 ‘변증학’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3학기 동안 이수한 15코스 중에서 특히 어학과목 8코스(시리아어 3, 히브리어 2, 아랍어 2, 아랍어 1)와 변증학 2코스에 역점을 두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 기간에 그는 특별히 화란인 변증학 교수 반 틸(C. Van Til)의 지도 아래 ‘진

정한 기독교 유신론/계시관'을 배웠다.

6. 화란 자유대학에서의 유학기간(1953.10~1954.3)에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 매우 고달팠으나 아내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중단되기까지 화란신학자들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자신의 주석학적 역량을 보충하고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그가 귀국 후 5년 만에 재시도한 박사학위 취득은 아쉽게도 실패로 끝났다.

7. 정량적(定量的) 방식에 따라서, 정암이 신약성경주석에 (성경 본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언급(인용)하는 화란학자들의 빈도수를 집계한 후 그 순위대로 열거하면: Greijdanus(278[105]회), Grosheide(218[95]회), Bavinck(95[65]회), Ridderbos(55[22]회), Van Leeuwen(35[6]회), Schilder(30[17]회), Kuyper(29[11]회), Vos(18[13]회), Bouma(18[3]회), Smilde(14[13]회), Wielenga(13[12]회), Dijk(5[3]회), Schippers(4[4]회), Van der Meulen(4[2]회), Dooyeweerd(3[3]회), Ringnalda(2[2]회), Van Til(2[0]회), 그리고 단 1회씩 언급되는 Aalders, Van Gelderen, Sevenster, Smelik, Van Herwerden, Van Oesterzee, Gispén, Berkouwer, Rutger, Vitringa, Bateloan 등이다.

8. 정암의 신약성경주석에서 (성경 본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모든 학자/주석가들의 언급총계(2888회)에 대비한 화란학자들의 언급총계(834회)는 28.9%에 달하고, Calvin(221회)을 제외하면 화란학자들과 다른 나라 학자들(1833회)의 언급비율은 0.45:1이 된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정암신학에서 화란신학이 그만큼 비중이 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9. '화란학자 의존도'가 높은 책들을 각 권별로 보면, 요한계시록(46.6%), 히브리공동서신(30.9%), 공관복음(30.8%)이며, '화란학자 의존도가 낮은 책들은 로마서(18.8%)와 고린도전후서(21.4%)이다.

10. 정암이 그의 신약주석 모든 책에서 빠짐없이 언급하는 학자들

은 Grosheide와 Bavinck이다. Greijdanus는 고린도전후서에서 안 보이고, Ridderbos는 히브리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에서 빠져있다. 화란 학자들이 끌고루 분포되어 언급되는 책들은 요한복음, 공관복음과 요한계시록, 사도행전의 순이다. 반대로, 화란학자들이 심하게 편중되어 언급되는 책들은 히브리공동서신,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바울서신의 순이다.

11. 신약주석 8권의 책 별로 제일 많이 언급되는 화란학자들은 Greijdanus(공관복음 43.3%, 로마서 57.6%, 바울서신 28.6%, 히브리공동서신 61.5%, 요한계시록 59.3%)와 Grosheide(요한복음 54.7%, 사도행전 67.4%, 고린도전후서 89.3%)이다.

12. 정성적(定性的) 관점에서, 첫째, 학자들의 '전공분야'를 감안하여 분석할 때, 교의학자들인 Bavinck, Schilder, Van Til은 신약주석의 언급총계가 각각 3위(95회), 6위(30회), 17위(2회)이지만, 정암이 그들의 신학사상을 실제로 수용한 정도는 그보다 훨씬 높았으리라 생각된다(비교: 『교리학』에서는 그들이 각각 1위(95회), 3위(10회), 4위(9회)로 올랐다).

13. Bavinck는 정암이 전공분야와 무관하게 시종일관 가장 깊이 의존하며 자주 언급한 화란학자였다(전체 화란학자의 언급횟수에 대비한 그의 언급비율은 신약주석에서 11.4%(3위), 『성경신학』에서 40.8%(1위), 『교리학』에서 58.3%(1위)이다. 그의 『개혁교리학』은 정암의 신약주석 각 권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유일한' 책이다).

14. Schilder는 주석에서의 언급비율(3.6%)이 가리키는 것보다 정암에게 훨씬 큰 기여를 한 학자이다. 그는 특히 예수의 수난기사와 관련하여 정암의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주석에 큰 영향을 미쳤다.

15. 그에 반하여, Kuyper는 의외로 정암과 그리 깊은 관계를 맺은 것 같지 않다. 어디서든 정암이 그의 저작에 특별히 매료되거나 심취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그의 언급비율은 신약주석에서 3.5%(7위),

『성경신학』에서 6.6%(4위), 『교리학』에서 3.7%(7위)이다.

16. Van Til의 언급비율은 신약주석에서 0.2%(17위)이고, 『성경신학』에서도 2.6%이지만, 그는 내적 수용과 의존도에 있어서 마땅히 Bavinck 다음의 둘째 순위를 차지해야 한다. 그의 전공분야인 ‘변증학’이 ‘성경주석’과는 방법론과 목적이 판이한 점, 『교리학』에서는 그의 언급비율이 5.5%(4위로 뛰어오른 점, 그에게 배운 바를 정암 자신이 깊이 감사한 점 등을 신중히 고려하면, ‘제시의존사색’과 ‘순타율주의’를 따라간 정암의 주석작업이 그에게 얼마나 큰 빛을 쬐는지 실감하게 된다.

17. 정성적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둘째 요소는 개별학자들의 ‘인용비율’(인용횟수÷언급횟수)이다.<sup>106)</sup> 정암이 그의 신약주석에서 화란 학자들을 ‘인용’한 전체 횟수(383회)를 ‘언급’한 전체 횟수(834회)로 나누면 전체의 평균 ‘인용비율’(0.46)이 나온다. 개별학자들의 인용비율은 대개 언급횟수가 18회 미만으로 낮은 학자들에게 높게 나타나며(최고는 Smidel(0.93)와 Wielenga(0.92)), 언급횟수가 18회 이상인 학자들 가운데 인용비율이 평균수준(0.46)을 넘는 사람은 Vos(0.72), Bavinck(0.68), Schilder(0.57) 세 사람뿐이다. 이 세 학자들은 정암이 다른 이들보다 더 가까이 수용하며 내적으로 의존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Vos의 언급빈도는 『성경신학』 12위, 17회과 『교리학』 5위, 8회에서 상승하였다).

18. 정암이 그의 주석에서 화란신학자들의 해석을 비판하거나 거부한 예들은 그가 그들을 결코 맹종하거나 과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정암은 때에 따라서 그가 가장 애호했던 Grijdanus의 해석조차도 기각하고(롬 7:7~25, ego; 계 12:14), Grosheide, Bouma의 해석보다 더 나은 자기 자신의 해석을 제시하며(약 4:11; 딤후

106) 이 글에서 필자가 구분하여 쓰는 ‘언급’과 ‘인용’이란 말의 정의에 관해서는 앞의 24~25쪽을 보라.

1:12), 양식사학과에 동조하는 Sevenster의 새로운 중도적 입장을 비판하였다. 평소에 높이 인정하던 Ridderbos의 해석도 때론 흠족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특히 그의 성경관에 나타난 변이를 매우 일찍 간파하여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암이 화란신학을 신학의 ‘배경’으로 삼았던 역사적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필자는 이 사실이 한국 장로교회에 속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우선 ‘과거’의 측면에서, 정암은 그의 시대에 화란 개혁주의 신학을 자발적으로 연구하여 소개함으로써 한국 장로교회 신학의 지평을 넓히고 그 내용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의 문호개방 이후 30년 동안 입국하여 “한국 장로교의 뿌리”를 형성 하였던 초기 장로교 선교사들의 신앙과 신학은 주로 “청교도 전통”에 있었다.<sup>107)</sup> 정암은 국내의 보수적 장로교 신학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주도한 그의 스승이자 선배인 죽산(竹山) 박형룡과 언제나 같은 신학적 입장에서 협력하였지만, 한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죽산은 우리가 기존의 청교도 전통으로 족하기 때문에 대륙의 개혁주의 전통을 구태여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데 반하여,<sup>108)</sup> 정암

107) 박용규, “한국 장로교의 뿌리,” 『신학지남』 68/3 (2001년 가을), 277~297쪽: 277~279쪽 보라. 참조: 김영재, 『한국교회사』 개정증보판 (서울: 이레서원, 2004), 152~157쪽.

108) 박형룡,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원래 『신학지남』 43/3, 1976년 9월에 발표한 글), 박용규(편), 『죽산 박형룡 박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6), 35~52쪽: 47~48쪽: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신학적 전통은 청교도적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그것이다. 그것은 구주대륙의 칼빈개혁주의 신학에 영미의 청교도적 특징을 가미한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이다…… 이제 개혁주의를 새로이 개발하거나 수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유럽대륙의 개혁주의에 영미의 청교주의를 가미하여 가진 장로교회이니 전자의 직접 수입을 수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청교도적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

은 늦은 나이에 불구하고 화란유학을 결심할 정도로 유럽의 개혁주의 신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화란에서 독특하게 발전한 칼빈주의 신학의 전통을<sup>109)</sup> 한국 장로교회에 접목했다. 이렇게 시작된 화란과의 신학적 유대는 설립 당시부터 정암의 영향을 받은 고신측 교단을 통하여 계속 유지되면서 이 교단이 1969년 네덜란드 개혁교회(de Gereformeerde Kerken in Nederland)와 자매관계를 맺은 후 더욱 활발한 교류를 나누어왔다.<sup>110)</sup> 또한 1960년 이후부터는 국내의 보수진영 교단(주로 고신 및 합동) 출신 가운데 화란으로 유학을 떠난 신학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11월 현재까지 약 20여 명이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 국내의 신학교육기관과 목회현장에서 일하고 있다.<sup>111)</sup>

둘째로 ‘현재’의 측면에서, 화란어 자습으로 시작한 정암의 화란신학 연구는 오늘날 신학연구와 목회사역에 임하는 우리의 동기와 태도를 끊임없이 자성하도록 촉구한다. 그가 화란신학을 공부한 동기는 ‘칼빈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일관성 있게’ 성경을 주석하기 위해서였고, 그가 필생의 사명으로 매달렸던 주석작업의 목적은 성경의 진리

을 확고히 보수하면서 그것의 해설에 필요한 보완을 행할 것 뿐이다”; 박아론, “죽산(竹山) 박형룡 박사의 생애와 신학,” 『죽산 박형룡 박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6), 139~157쪽; 146~147쪽.

109) 네덜란드의 ‘신칼빈주의’(Neo-Calvinism)에 관해서는 김영재, 『기독교교회사』 개정증보판 (서울: 이레서원, 2004), 664~667쪽을 참조하라.

110) 이에 관해서는 허순길, 『고려신학대학원 50년사』 199~204쪽을 보라.

111) 화란 자유대학에서 선교학을 전공한 이근삼(전 고신, 교의학 교수)이 1962년 처음으로 신학박사(Th.D.) 학위를 취득한 후, 60년대 하반기에는 차영배(고신, 후에 합동), 허순길(고신, 교회사), 서철원(합동, 교의학), 정성구(합동, 실천신학), 손봉호(고신, 철학) 등이 유학하였고, 80년대에는 정훈택(총신, 신약), 송계근(구약), 유해무(고신, 교회사), 변종길(고신, 신약), 전광식(고신, 교의학) 등이 공부하였으며, 90년 이후 지금까지는 한천설(총신, 신약), 최윤배(장신, 교의학), 김지관(총신, 구약), 류호준(기독교대, 구약), 이정석(총신, 교의학), 이상원(총신, 윤리학), 정광덕(총신, 윤리학), 김영욱(총신, 구약), 안인섭(총신, 교회사), 정창욱(총신, 신약), 신현수(총신, 신약) 등이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위에 교회를 세우고 돌보기 위해서였다.<sup>112)</sup> 그가 말년에 슬회한 “나의 신학”이란 그 자신이 “창작”하거나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재래의 신학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내 것”으로 삼은 것을 의미했고, 그 신학의 “주제”는 어디까지나 “설교와 관련된 범위”에 국한되었다.<sup>113)</sup> 한마디로, 그는 목회와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신학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당대의 교회가 요청하는 시급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쉼 없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글을 써내는 틈틈이 주석저술에 몰입해야 했으므로 자신도 가족도 돌보지 못했다. 무려 25년 간(1935~1960년) 책으로만 독학한 그의 화란신학 연구는 학위취득이 좌절된 이후(1960년)에도 평생 동안 변함없이 계속되었다.<sup>114)</sup>

누구든지 정암의 생애를 한번이라도 훑어본 신학도라면, 자신의 현재 여건과 기준으로 그의 주석과 글들에 나타난 약점을 비판하고 닦하기 전에 먼저 그가 이 나라 교회에 혼신을 바쳤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도전을 받으며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의 삶은 ‘신학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명제가 옳았음을 증명한다. 신학의 기능은 교회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일이며, 신학의 목적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다. 교회의 삶과 영적 소요에 무관심한 채 고답적(高踏的) 취미에 골몰하는 신학은 자신과 교회를 병들게 한다. 우리는 오늘날 서양교회의 몰락에서 그러한 인본주의 신학의 귀결을 목도하고 있다. 한국에서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신학의 노선을 따르는 정암의 후배들은 그가 보여준 ‘섬기는 신학’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나의 새로운 것’을 ‘창작’하기에 혈안이 되어 다른 사람의 연구를 분석하고 비교하고 비평함으로써 결국 “자아주장을 풍기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sup>115)</sup> 또한 오로지

112) 서영일, 『박윤선의 개혁신학 연구』, 249쪽.

113) 박윤선, “나의 신학과 나의 설교,” 『신학정론』 4/5 (1986. 5), 16쪽.

114) 그는 생애 말년까지 “항상 화란어 사전을 곁에 두고 일하였다”(이창숙, 필자와의 인터뷰, 2004년 10월 8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기 위하여 학위와 무관하게 모든 필요한 언어를 책으로만 정복했던 정암은 현대의 최첨단 어학기재와 학습도구들에도 불구하고 언어습득에 게으른 우리에게 열심과 끈기를 촉구한다.

셋째로 '미래'의 측면에서, 정암이 그 당시 한국 장로교회에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을 도입했던 역사적 사실은, 오늘날 세계 교회와 신학계를 향한 한국의 개혁주의 교회와 신학교의 선교적 사명을 일깨워준다. 세계 교회의 영적 기상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근본주의-현대주의의 논쟁이 치열하던 1930년대의 미국 유학 당시 정암은 화란의 칼빈주의 신학자들을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그들을 읽고 소화한 대로 국내에 소개하였다. 그런데 화란개혁교회의 신학은 5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반적으로 건전했으나, 50년대 후반에는 화란 신학계도 베르카우어(G. C. Berkouwer)의 영향아래 성경비평학을 도입하였고, 60년대부터는 급속히 진보주의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였다.<sup>115)</sup> 최근의 화란 신학계는 세속 학문의 영향과 접목으로 자유주의 경향이 거대한 주류를 형성하였고, 교인들의 수가 날로 급감하는 현상에 있어서 서구의 다른 기독교 국가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sup>117)</sup>

115) 박윤선, "격려사: 성경과 신학," 『성경과 신학』 1 (1983), 5-6쪽 (= 『성경과 나의 생애』, 95-96쪽): "신학자는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따라서 그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그 스타일조차도 섬김의 성격을 나타내야 한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신학자들이 학자로서의 교만(academic pride)을 풍기게 되기 쉽다. 신학도 일면 학문이니만큼 그 표현에 있어서 학문상 전문 술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그는 그 본술의 스타일에 무언 중 자아주장(自我主張)을 풍겨서는 안 된다. 신학운동은 학문운동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운동이다.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동시에 기도운동이어야 한다. 기도 없는 연구작업은 마침내 인본주의로 떨어지게 된다. 참된 기도로 뒷받침하는 신학 연구는 동시에 경건(敬虔)의 능력을 소유한다."

116) 허순길, 필자와의 이메일 인터뷰 (2004년 6월 7일); 전광식(현 고신대학교 부총장), 필자와의 이메일 인터뷰 (2004년 6월 2일).

117) 이봉춘, "특별초대석: 화란 자유대학교의 아브라함 반 데 비이크(Abraham van de Beek) 교수 - 교회의 정체성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목회와

그러면 2004년 현재 지구상에서 우리가 신뢰하며 도입할 수 있는 개혁주의 신학은 어디에 남아있는가? 얼른 머리 속에 떠오르는 곳이 없다. 서양교회는 전반적으로 세속화와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 사상으로 인해 복음적인 신학이 이미 오래 전에 퇴색하였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개혁주의 교회가 가장 왕성한 드문 나라에 속한다. 우리는 20세기의 서양교회와 신학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선 안 된다. 오히려 한국 개혁교회의 복음적 신학과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전시키고 성숙시켜야 한다. 이 나라 곳곳에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전통이 굳건히 뿌리를 박고 세워지도록 전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참신한 개혁주의 전통을 21세기 세계교회와 신학계에 역수출함으로써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sup>118)</sup>

이 비전은 정암의 후진인 우리들에게 한낱 허황된 망상이 아니라 불가피한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실로 한국교회의 사활이 바로 이 역사적인 도전 앞에 걸려 있다. 지난 세기에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운데 놀랍게 부흥하였던 이유는 분명히 세계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신학도들의 숫자는 제3세계를 다 합한 수보다 많다. 수많은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국내외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교회의 귀하고 복된 자원이다. 우리는 이제 서양 비평신학의 방법론적 문제를 극복하고 한국의 독특한 성경적 개혁주의 신학의 방법론과 전통을 세워나가야 한다. 서구학자들의 저서를 그대로 번역하여 도입했던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는 우리 교회의 믿음을 건전하게 세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 임상적으로 검증된 신학을 함께 만

신학』 163 (2003년 1월), 42-43쪽을 보라.

118) 한철하, 『21세기 인류의 살 길』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29-104, 113-192쪽을 참조하라.

【별첨자료】 정암의 신약성경주석에 언급(인용)된 회란 신학자들

학자별	신 약 성 경 주 석										성경 신학	개역 주요 교리학
	합계	공판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고후	바울서신	히브리·공동	계시록			
Calvin	221 (42)	8 (1)	31 (6)	35 (8)	32 (9)	9 (0)	60 (9)	42 (9)	4 (0)	10	53	
1 Greidanus	278 (105)	52 (36)	2 (1)	1 (1)	34 (5)	0	34 (7)	59 (9)	96 (46)	1	11	
2 Groshelde	218 (95)	8 (2)	75 (37)	64 (19)	3 (3)	42 (29)	1 (0)	22 (4)	3 (1)	5	4	
3 Bavinck	95 (65)	26 (19)	17 (16)	8 (8)	5 (3)	1 (1)	9 (5)	7 (2)	22 (11)	31	95	
4 Ridderbos	55 (22)	3 (3)	5 (4)	2 (2)	15 (4)	3 (2)	27 (7)	0	0	10	7	
5 Van Leeuwen	35 (6)	9 (4)	0	0	0	0	26 (2)	0	0	0	0	
6 Schilder	30 (17)	10 (5)	9 (6)	1 (1)	0	0	0	6 (3)	4 (2)	0	10	
7 Kuiper	29 (11)	4 (1)	4 (4)	0	1 (0)	1 (1)	0	0	19 (5)	5	6	
8 Vos	18 (13)	3 (1)	4 (4)	2 (2)	0	0	4 (2)	1 (1)	4 (3)	17	8	
9 Bouma	18 (3)	0	1 (0)	0	0	0	17 (3)	0	0	0	2	
10 Smilde	14 (13)	1 (1)	9 (8)	0	0	0	0	0	4 (4)	1	0	
11 Wielenga	13 (12)	0	0	13 (12)	0	0	0	0	0	0	0	
12 Dijk	5 (3)	3 (2)	0	0	0	0	0	0	2 (1)	0	0	
13 Schippers	4 (4)	0	3 (3)	1 (1)	0	0	0	0	0	0	0	
14 Van der Meulen	4 (2)	0	0	0	0	0	0	0	4 (2)	0	0	
15 Dooyeweerd	3 (3)	0	2 (2)	1 (1)	0	0	0	0	0	2	6	
16 Ringalda	2 (2)	0	0	0	0	0	0	0	2 (2)	0	0	
17 Van Til	2 (0)	1 (0)	0	0	1 (0)	0	0	0	0	2	9	
18 기타 회란학자들	11 (7)	0	6 (4)	2 (2)	0	0	1 (0)	0	2 (1)	2	5	
회란학자들의 합계	834 (383)	120 (74)	137 (89)	95 (49)	59 (15)	47 (33)	119 (26)	95 (19)	162 (78)	76	163	
다른 나라의 학자들	1833	261	315	256	223	164	262	170	182			
총계	2888	389	483	386	314	220	441	307	348			

들어 가야 한다. 또한 신구약성경 각 부분을 세부전공으로 더욱 자세히 연구하여 정암이 그의 전권 주석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많은 내용들을 보충하며 심화해야 할 것이다. (\*)